한계가 보이는 노지재배, 대안은 ‘시설농업’

지구 온난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0년 간 우리나라 연 평균기온이 1.8℃가 상승한 것은 물론, 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작물 한계지는 80㎞를 북상한다는 보고는 농가들의 속을 태우기에 충분하다.

농업 현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노지재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관건.

시설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시설 내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생산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최근에는 유럽형 시설농업이 이목을 끌고 있다.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 의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무주군 농업인들도 유럽형 시설원예농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이번 연수는 (사)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관내 농업인 단체 대표와 시설재배 농가, 농협관계자, 공무원 등 26명이 네델란드와 독일, 스위스 등 유럽 3개국에서 5박 7일 동안 함께 했다.

무주군은 유럽의 첨단 시설농업 현장과 친환경 신기술 재배, 판매·유통 시스템을 보고 온 이번 일정이 생산주체인 농업인들의 의지와 행정의 정책 구상 능력을 키우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예정인 〈정보통신기술(ICT)접목 첨단 시설하우스 농업 육성사업〉추진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농업 선진지서 가능성을 보다!

“배워야 산다더니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설농업 선진지를 다녀온 농가들의 일성이다. 독일에서 친환경 사과와 호박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과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 일단 규모에 놀랐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농장형태와, 직영 상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행들은 독일에서 허쉬버그와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친환경농장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3만㎡ 규모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친환경농장은 생산부터 체험,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환경이었으며 농장과 연계된 전통시장들은 온갖 농산물과 먹거리,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생산만 하는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로선 굉장히 새롭고 부러운 환경이었다”라며 “우리 여건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주력작목 재배환경, 시설, 농법 등에 주목

네덜란드에서는 유리온실을 활용한 대규모 농업단지와 시설농업 교육센터 등을 둘러봤다. 이들 시설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오이, 딸기, 딸기육묘 재배기술을 등을 연구, 개발, 교육하거나 생산, 홍보,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일행들은 생산과 가공, 유통을 총괄하는 혁신농업단지 〈Agriport a7〉에 특히 주목했다.

이곳은 850㏊ 규모의 유리 온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 화된 시설, 풍부한 일조량,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경쟁력이 남다르다. 또 첨단유리온실 스마트 팜의 표준이자 대표적인 견학시설로 해마다 전 세계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지역 환경과 여건, 재배 품목에 맞게 시설들을 참 잘해 놨더라고요. 농가들이 토마토와 딸기 육묘를 재배하는데 유리온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딸기육묘와 딸기 품목은 우리 군에서도 주력을 하고 있는 거라 재배 환경이나 시설, 농법 등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생산부터 체험·판매까지

독일 허쉬버그·프랑크푸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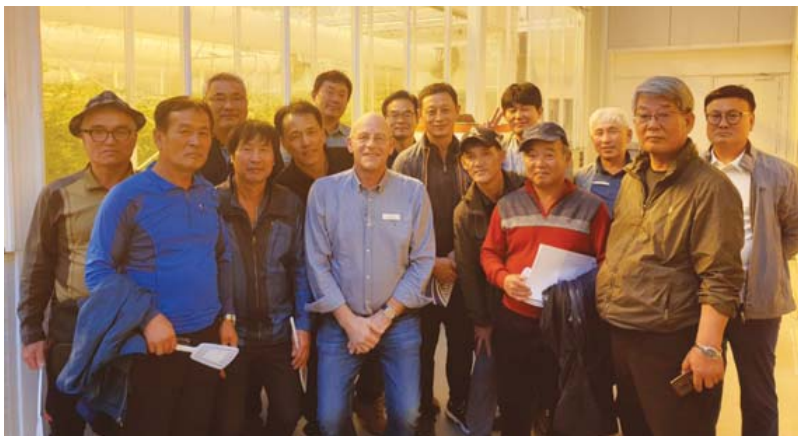
친환경농장·전통시장 등 방문

지역 환경·재배 품목에 맞게

네덜란드서 유리온실 활용한

대규모 농업단지·교육센터 찾아

혁신농업단지 ‘Agriport a7’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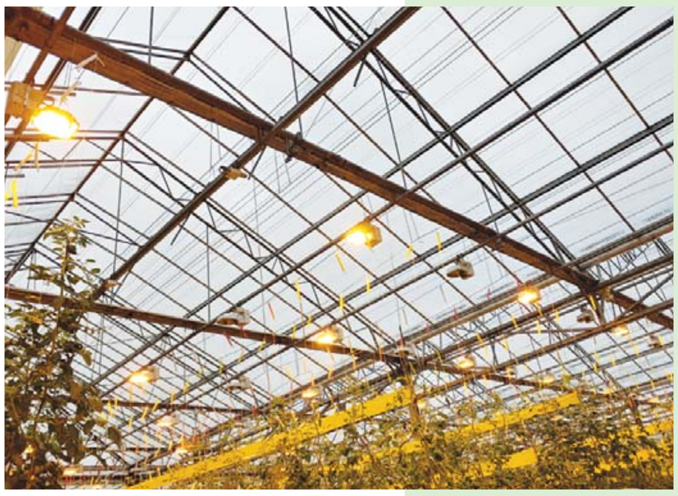


▲ICT접목 첨단 시설하우스 농업을 기대하다!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예정인 〈정보통신기술(ICT)접목 첨단 시설하우스 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무주군은 딸기육묘를 비롯한 토마토와 고랭지 딸기 등 지역 특성화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내 재해형 연동하우스와 부대시설(첨단제어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연수가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재배시설과 운용시스템, 인력, 마케팅 등에 관한 총체적 시스템을 두루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기 때문.

일행들은 △무주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시설 재배지원사업 확대계획을 요청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합한 읍면별 주요 시설재배 작목을 선정·육성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재배 과정 교육지원 강화와 △시설재배농가 및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사말

“소득농업 이끌어가는데 최선”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한광철 과장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을 시설원예에 접목해 생산 집적화, 혁신인력 양성, 기술혁신을 이루는 산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데요. 이에 발 맞춰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 흔들림 없는 건강한 농업, 무주발전에 이바지하는 소득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주농업 발전 이끌어 갔으면”

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 최연주 회장

“이번 연수는 우리 농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돼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장들을 볼 때는 농가들의 열의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연수를 계기로 농가들의 의지와 무주군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맞물려 무주농업 발전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